

프로폴리스의 위력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을 다스린다)

-위염, 암, 류마티스, 요통, 생리통, 간경화등-

두리원 대표 김해용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지난호 이어서-

5. 동구권에서 왜 먼저 발달했나

동구권에 속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국가들이 공산 통치로 인해 국력은 쇠퇴해졌고, 국민의 생활은 바닥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찬란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었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사에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던 싸움은 만주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라고 여긴다. 이때에 사용한 무기들 중에 절반이 체코슬로바키아 제품이였다. 우리는 칼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총을 만들고 대포도 만들던 저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현대 의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많은 연구비와 시설비가 들어간다. 지금 우리 나라 종합 병원들 가운데는 기계 한 대에 수억원 씩 하는 것을 몇 대씩은 다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고가 의료기구 구입도 가능해졌다. 국민의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무리이다. 기계의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소비되는 금액만해도 수십만원이 된다. 경제 수준은 낮지만, 정신적 문화 수준이 높은 동구권에서 국민적 차원으로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현대의학보다는 돈이 들지 않는 재래적 민간요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익이었다.

어떤 물질을 분석할 때는 돈보다 고급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 자국 대학에서 육성시킨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값싼 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려고 하면, 저질 사료로 키울 수 있는 실험용 쥐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들이 찾던 물질 가운데 하나가 프로폴리스였다.

그들이 사용하여 보니 놀라운 효력에 매료되어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하는 학자들 이 수십 명에 이르자, 그들의 열기가 동구권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제적 열악성은 공산 국가들마다 동일하다. 공산

국가가 되기 전 선진국 수준에 있었던 쿠바가 그러했고,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GNP가 우리보다 높았던 북한도 그랬다. 북한은 현대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것이 한의학이다. 그들은 한의학이라 하지 않고 동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의학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선 감이 있다. 값싼 인력을 동원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소홀히 하였던 것을 동물실험을 거쳐 상품화 시킨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필자가 갖고 있는 수십권의 북한 한의학(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있음) 가운데 2~3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책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95년 부터 동양의학에 대한 투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방면에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는 좋은 책들도 많이 출간될 것으로 여긴다.

6. 프로폴리스는 치료제인가, 치유제인가

치료제와 치유제가 어휘는 달라도 뜻은 같지 않은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낱말도 다르지만 뜻도 다르다. 동양국어사전에는 「치료」를 병을 잘 돌보아서 낫게 함. 이라고 했고, 「치유」는 치료를 받고 병이 나옴. 이라고 했다. 한자로 治療라고 쓸 때는 다스릴 치(治)와 병고칠 료(療)를 사용하고, 治癒라고 할 때는 다스릴 치(治)와 병들 유(癒)를 사용한다. 한자에는 치료를 타인(의술인)의 힘에 의해 고침을 받는 것이 다소 강조되어 나타나 있고, 치유에서는 자기 힘(면역 기능)에 의해 스스로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영어에는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다. 영어에는 치료를 Medical treatment 즉 의학적인 치료의 뜻을 나타내고, 치유에는 recover 라고 하여 “되찾다, 고치다, 재발견하다.”는 뜻이 있다. 종교적으로는 “회개시키다”는 뜻도 있다. 치료는 약으로 고친다는 뜻이 있고, 치유는 자가 면역에 의해 병이 낫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의사가 치료해서 낫는다고 할 때는 합법적인 용어가 되지만, 지압사가 몇 달 지압을 받으면 치료가 된다고 할 때는 용어상 의료법 위반이 되지만 치유가 된다고 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복용이라는 말과도 비교가 된다. 「복용」은 약을 먹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음용」이라는 말은 식품을 먹을 때 사용되는 용어다. 식품을 갖고 “잘 「복용」하세요.”하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



다. 제목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프로폴리스는 약인가, 그렇지 않으면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식품인가? 그러한 뜻이 된다. 프로폴리스는 식품 공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생법상 식품에 속한다.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프로폴리스는 엄연히 식품이지만, 프로폴리스가 갖고 있는 작용을 보면 약성(藥性)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전장에서 쏜한 바 있지만, 하나 먹으라고 할 때 1~2개 까지는 괜찮아도 그 이상을 먹을 때 몸에 큰 부담을 준다면 이는 약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고, 정식 용량의 3~4배 먹어도 인체에 부담이 없다면 이는 식품이라고 논한바 있다. 약리 작용이 있을 때는 며칠 사용해도 낮지만, 영양화 작용만 있는 식품은 1~2개월 안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프로폴리스는 치근염에 몇 번만 발라도 낮게 된다. 이를 보면 프로폴리스는 엄연히 약에 속할 수 있는 물질이다. 약의 단점은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왔다가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될 수 있고, 때로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장점은 며칠 사용으로도 병이 나올 수 있고, 약에 따라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식품의 단점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 사용하였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 다르다. 장점은 부작용이 없고, 한 곳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지고, 식품으로 치유가 되었을 때는 재발성이 없다.

프로폴리스는 피를 맑게 하면서 자가 면역을 키워 준다. 그리고 화학 약품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식품에 속할 수 있는 물질이다.

프로폴리스는 약과 식품의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의사나 약사가 프로폴리스를 사용할 때는 치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도 건강식품으로 사용할 때는 치유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2. 프로폴리스란

1. 나무의 진액 물질과는 다르다

프로폴리스의 주원료가 나무의 진액물질이므로 나무의 진액을 먹으면 프로폴리스와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진액 물질을 직접 채취한다고 하면 한 나무의 진액 밖에 얻을 수 없지만, 꿀벌은 여러 수목에서 다양한 진액을 수집한다. 벌의 타액과 꽃가루 등이 첨가되었을 때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 특이한 작용을 줄 수 있는 것이 봉산물의 특징이다.

로얄제리는 벌통 이외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질이다. 꿀과 꽃가루를 먹은 유봉들이 인두에서 내는 점액물질이지만, 꿀이나 꽃가루에서 낼 수 없는 특별한 효과를 로얄제리가 낸다. 진액+타액+α(알파)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다. 소나무 꽃가루나 오리목 꽃가루들은 입자마다 필름코팅(film coating)이 되어 있어서 체내에 들어가서도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수술과 암수술이 교잡되었을 때 다른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는 대신 제 2의 생명체인 열매의 결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꿀벌들이 꽃가루를 채취할 때는 타액과 꿀을 다리에 발라가면서 꽃가루를 묻힌다.

그럴 때 타액이 꽃가루에 닿으면 단백질과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발효작용을 일으킨다. 발효가 되면 아무리 단단한 필름코팅도 힘없는 방패막에 지나지 않는다.

꿀벌의 타액이 첨가되지 않은 꽃가루는 체내에서 흡수가 되지 않지만, 타액이 첨가된 꽃가루는 수분의 흡수가 잘 되면서 체내 흡수도 잘 된다.

필자가 참고한 본초학, 실용동의약학 등 다수의 책에서는 “진액은 거담, 염증, 습진에 관계되는 질병의 연고제로 사용한다”고 했다. 혈액 순환과 관계되는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 문헌은 아직 찾지 못했다.

프로폴리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질환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암, 심장병, 동맥경화, 고혈압, 신장염, 관절염, 신경통, 간경화, 당뇨병 등 다양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진액에다 꿀벌의 타액 등 여러가지 물질이 더 첨가된 결과로 보인다.

2. 프로폴리스의 성분과 분석

프로폴리스의 구성 성분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벌들이 갖고 오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물질의 구성 형태는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수 많은 샘플들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으로 증명된 것이다. 포괄적으로 채집된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

50~55% 수지(樹脂) 물질과 방향성(芳香性)물질
 25~33% 밀랍
 10% 휘발유 또는 정유(精油)
 5% 꽃가루
 5% 다양한 유기물과 미네랄

근래에 와서는 유기물과 무기물, 효소, 미량 물질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유기산 : 안식향산, 몰식자산
- ②페놀산 : 카페인산, 계피산, 페롤라산, 이소페루라산, 아구마루산
- ③방향성 알데히드산 : 바닐린, 이소바닐린
- ④구마린 : 에스크레틴, 스키포레틴
- ⑤플라보노이드(flavonoid)류
 플라본 : 아카세틴(Acacetin, 미황색 결정 물질로 용점 261℃ 아카시아 나뭇잎에 들어 있음) 크리신(프로폴리스와 밀랍을 노란색으로 만 드는 물질, 펙토리나리제닌, 피노세브린, 텍토크리신.)
 플라노본 : 피노스트로빈(강력 살균제) 사쿠라네틴
 플라노볼 : 파노반크신, 라비나(A. Ravina) 연구에 의하면 플로보노이드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래와 같은 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혈관에 직접작용, 비타민C의 활성 증강, 염증의 경감 등.
- ⑥미네랄
 알루미늄, 바륨, 붕소, 크롬, 코발트, 구리, 철, 납, 망간, 몰리브덴, 니켈, 셀레늄, 실리콘, 은, 스트론튬(Strontium), 티타늄(Titanium), 바나듐(Vanadium), 아연 이 모든 성분은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⑦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B군 중 특히 비타민B6 니코틴아미드
- ⑧효소
 아밀라제(Amilases)
 카텡신(Cathepsin)
 리파제(Lipases)
 이눌라제(Inulase) : 인슐린을 과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 ⑨기타 성분

젠도론헤올(Xanthoronheol), 프테로스틸벤(Pterostilbene), 락톤, 폴리사카라이드, 아미노산,

O-및 M-쿠마린산, 키티신산(진통제 히드로카페인산, 살리실산)

이상의 성분들은 지역과 생산자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었지만, 거의가 비슷하다. 프로폴리스 속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물질도 더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므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더 밝혀질 것이다.

3. 프로폴리스는 약성(藥性)을 갖고 있는 물질

프로폴리스는 엄밀히 말하면 식품이 아니고 약에 가까운 물질이다. 식품이라고 하면 5대 영양소 가운데 열량 영양소인 당질이나 단백질, 지방 외에 섬유질이라도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폴리스에는 이러한 것이 들어 있지 않고, 액상으로 추출하였을 때는 섬유질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식품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식품 공전에 허가 사항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 나라 양봉인들이 스스로 명친 데 있다. 약전에만 나와 있으면 이는 약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을 때도 약사법에 적용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남미쪽의 양봉인들은 약전에 오르는 것을 결사 반대해서 식품으로 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제일 먼저 남미쪽에서 인정되었고, 수년전에는 일본에서도 식품으로 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원하게 여겨졌던 프로폴리스를 96년부터 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미 남미쪽에서 식품허가가 나온 것을 알고, 1988년 8월에 허가 문제로 당국에 문의하였을 때 프로폴리스는 식품으로는 허가가 될 수 없고, 미국에서는 반창고나 접착제 이용 목적으로 허가가 나와 있다는 회신을 받은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94년도 건강 식품 가운데 최고판매고를 올린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이 프로폴리스도 다른 건강 식품과 같이 처음에는 붐이 일다가 몇 년 못가서 없어질 그런 제품은 결코 아니다. 꿀, 꽃가루, 로얄제리와 같이 영구히 지속될 봉산물(蜂産物)이다. 국내에서도 서서히 붐을 타고 있으므로 불연지간에 프로폴리스 시대가 올 것으로 여긴다.